

왜 우리는 맥아더 장군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점점 더 확신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 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키우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키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키우는 일 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 평생을 투자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일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만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 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사업을 잘하는 것과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입니다. 자녀는 사회생활의 성공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잊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녀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일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사업과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며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자녀를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공과 출세에 비중을 두는 삶이 결코 자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업과 직장생활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일은 자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취욕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 때문에, 인간적인 성취욕에 눈이 멀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를 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나 세상적으로 아무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양육했다면 그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가장 귀하고 큰 일을 한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자녀교육에 실패했다면 그의 세상적인 성공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교육은 ‘풀타임 잡’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보다 귀한 것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회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교육입니다. 사람들은,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자녀교육은 개인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일이고 자녀를 바로 키우는 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가 소명 이듯이 자녀를 바로 키우는 일도 중요한 소명입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아내에게 결혼 후 교사를 사임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감사하게도 제 뜻에 동의해주었습니다. 만일 아내가 그와 같은 제 뜻에 동의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여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참으로 엉뚱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자식 농사를 무조건 망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잘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포기하고

조금 여유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파트타임 잡' (part-time job)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풀타임 잡' (full-time job)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녀보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 (시 127:3) 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식은 기업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보다 자식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내가 애나 보려고 이 힘든 공부 한 줄 아느냐?”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를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백 개 따도 모자랍니다. 박사학위 백 개 따서 아이 하나를 잘 키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그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관리해오셨으며,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보다 사업과 직장애 인생을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업과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좀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부모들은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이기적인 성취욕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부자 엄마 아빠가 되어야만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부모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를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성취보다 더 중히 여길 줄 아는 부모입니다.

말과 마음으로만 말고

저는 이 책에서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중심으로 자녀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 자녀를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녀를 직장보다 귀히 여기고 사업보다 귀히 여기고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보다 귀히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데만 시간을 다 쓰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돈 버는 시간을 좀 줄이고 돈보다 귀한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모든 시간을 다 쓰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야기 하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휴가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놀이공원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은 부모가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장사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더 귀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모든 자녀들 역시 부모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녀들이 많을 뿐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방법을 모을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세상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효도는 말과 마음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세상과 직장, 그리고 사업을 부모보다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외롭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마음으로만 자녀를 사랑하고 실제로는 자녀들보다 사업과 직장과 개인의 성공을 더 귀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 더 크고 귀한 기업으로 맡겨주신 혹은 앞으로 맡겨주실 자녀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귀히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보무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1-3).

저는 늘그막에 자식 덕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좀 엉뚱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제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막힌 복'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식 덕은 물론 마음이지만,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자식 덕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몰라도
경제적으로까지 자식 덕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식을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자식 덕을 보면서 산다는 것은 계산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마음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자식에게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자 효녀는 자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좋은 부모 밑에서도 불효하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좋지 못한
부모 밑에서도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효자 효녀는 좋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효자 효녀가 먼저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그저 좋은 후원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뒷바라지만 부족함 없이 해주면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란 좋은 후원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원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기도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부모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기성세대들은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서 우리는 기도를 잊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며 자녀들이 원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면서, 요즘 부모들은 예전의 자기 부모보다 더 유능하고 훌륭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자기보다 더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눈물의 기도를 잊었습니다.

좋은 부모란?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돈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돈은 누구나 마음먹는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에게 인생과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교사여야만 합니다.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요 스승이었습니다. 옛날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예절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그저 옛날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후원자일 뿐인데, 돈으로 부모 노릇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좋은 아빠이고 가난한 아빠는 그렇지 못한 아빠인 것처럼 모두들 착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의 부모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넉넉해진 오늘날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좋은 학교 보내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설령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만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가르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부모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똑똑해서 좋은 학교에만 가면, 그래서 이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출세하게 되면 그냥 훌륭한 삶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기도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어리석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빼뚫어지고 망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김삭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지금 맥아더의 기도를 말하는가?

저는 당신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았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기 이전에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맥아더 장군과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가르침은 오로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까?

저는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을 바탕으로 자녀를 위해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분별과 용기와
금지와 온유에 대하여, 도전과 인내와 긍휼에 대하여, 비전과 절제와 전진과 반성에
대하여, 그리고 여유와 겸손과 관용 등을 조목조목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 되기에 도전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즉 부모가 자녀들의 정말 좋은 교사가 되려면 먼저 교사
된 부모가 잘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과 기도만이
아닌 부모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맥아더 장군이 기도했던 그런 자녀 얻기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는 일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실제로 자녀의 손을 잡거나
직접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인생과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로서의 부모에 도전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자식을 위해, 하나님과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사업과 목회와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만일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지도 모른채 자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실력이 부모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문제는 곧 우리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맥아더 장군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 기도 내용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에도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녀를 대할 때 바른 예의를 갖춘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만듭니다. 효자 효녀는 좋은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효자 효녀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